쇼토쿠 태자 입멸 1400주기 법요 회향

3일 고대 불교의식 재현해

아악과 불교 음악의 합주
아사히 신문 유튜브 중계

김민재 객원기자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입멸 1400주기를 기념하는 법요가 호류지(法隆寺)에서 봉행됐다. 사진출처 = 아사히신문

고대 한일불교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자, 일본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입멸 1400주기를 기념하는 법요가 호류지(法隆寺)에서 봉행됐다. 4월 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은 호류지에서 진행된 법요식의 모습을 특별 보도했다.

쇼토쿠 태자와 인연이 깊은 호류지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3일간 쇼토쿠 태자 입멸 1400주기 법요식을 봉행했다. 호류지는 7세기 태자의 명령으로 건립된 사찰로 매년 태자의 기일에 맞춰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으나, 이번 법요식은 1400주기라는 회기를 기념해 100여 년 전 1300주기 기념 법요식의 규모에 준하여 성대하게 진행됐다.

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빈과 진행요원 등 법요식의 참석인원은 450여 명 정도로 축소했고 방역수칙도 준수했다. 일반 참배객들의 분산을 위해 3일간의 법요식은 모두 아사히 신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쇼토쿠 태자는 일본에 불교를 도입하고 최초로 사찰을 세웠으며, 불교의 이념에 근간한 〈17조 헌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했다. 특히 17개조의 첫 조항으로 말한 '화합을 가장 귀히 여겨라(以和爲貴)'라는 말은 지금도 일본에서 스스로의 사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화(和)'의 시작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 〈17조 헌법〉에서는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라'고 명시하여 명실공히 일본의 국교를 불교로 인정하였다.

법요식의 첫날 호류지 주지인 후루야 쇼카쿠 스님를 대표로 120명의 대중은 비단 휘장을 친 연(輦)을 들고 호류지 동원(東院)의 쇼토쿠 태자의 사당으로 향했다. 대중들은 사당에서 간단한 예불을 올리고 사당에 모셔져 있던 쇼토쿠 태자의 존상과 손바닥 뼈로 알려진 유골을 각각 연에 담아 법요식의 중심 장소인 강당으로 이운했다. 이운의식에는 쇼토쿠 태자와 인연이 있는 사찰 및 종단의 주지와 대표자들이 참가하였고, 일본 궁중음악인 아악(雅樂) 연주자들이 음악과 춤을 공양했다. 강당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전의 내용을 문답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는 토론의식이 진행됐다. 법요식 중에 진행된 문답은 쇼토쿠 태자가 생전 주석을 달고 강론하였던 〈법화경〉 〈승만경〉 〈유마경〉의 내용 가운데서 선별되었다.

각 의식의 사이에는 아악연주와 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일부 예불은 스님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대중이 함께 예불문을 독송했다.

호류지 측은 "고대 일본불교의 의례에서는 아악을 연주하여 불보살을 공양하였다. 쇼토쿠 태자가 세운 오사카의 시텐노지(四天王寺)에도 돌로 만든 무대가 남아있다. 이러한 전통을 되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토쿠 태자에 대한 소개와 기념사가 이어진 가운데 주지 쇼카쿠 스님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분쟁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쇼토쿠 태자가 소중이 여긴 화합을 상기하며 사회 화합의 정신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3일간의 법요식은 금당에 모셨던 쇼토쿠 태자의 존상과 유골을 다시 사당으로 이운하는 것으로 회향됐다.

달라이라마, 러시아대학생과 특별 대담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해
러시아 5개 주립대 학생 참여


달라이 라마가 러시아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텐진 잠펠 스님

지난 3월 31일 불교전문매체 '글로벌 부디스트도어'는 달라이라마와 러시아 대학생들이 가진 특별 대담회의 모습을 보도했다.

이번 대담회엔 러시아의 5개 주립대 학생이 참가했으며 '변화의 시대 속 우리의 세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대담은 유튜브와 SNS 채널 등을 통해 다국어로 동시통역돼 생중계됐다.

달라이라마는 3월 24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 관저에서 온라인으로 대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담회는 모스크바 주립대학의 체르니고프스카야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대담회에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미크, 부랴트, 투바 주립대의 대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모스크바의 세이브 티베트 재단, 티베트 문화 정보 센터가 주관했다.

특별 대담은 달라이라마의 짧은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러시아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모든 인간은 한 가족이며 분열 없이 상생해야 한다. 우리는 지구라는 한 행성에서 함께 살아야하기 때문에 자국, 타국을 나누지 말고 인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와 '그들'로 싸울 여지가 없다. 이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 학생의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따뜻한 마음이야 말로 모든 이가 가진 아름다움이다. 동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당신이 다른 존재에 대한 애정과 친절함에 의욕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는 바로 당신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으로 반영될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답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러시아가 유럽권에선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러시아 연방의 몇몇 공화국들이 여전히 불교국가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러시아 불자들에게 기도와 의식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교학을 공부하고 배운 것을 과학과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특별 대담에서 학생들에게는 "논리와 분석을 통해 지혜를 향상시키는 나란다 대학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도 '나가르주나 사가르'에 불교테마파크 개장

텔랑가나주도, '부다반암' 건립

인도의 관광명소 중 하나
'팔정도' 상징 8구역 구성


나가르주나 사가르 호반 인근의 부다반암 전경. 사진출처=더뉴스미닛

대중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인도의 관광 명소 나가르주나 사가르(Nagarjuna Sagar) 댐 인근이 불교테마파크 개장으로 한층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인도의 인터넷 매체 '더뉴스미닛(thenewsminute)'은 4월 2일 "나가르주나 사가르는 곧 개장할 부다반암(Buddhavanam)이라는 불교 문화유산 테마파크 덕분에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며 "부다반암은 관광객들을 확실히 놀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가르주나 사가르는 인도 텔랑가나(Telangana)주도의 하이데라바드(Hyderabad)로부터 날곤다(Nalgonda) 방향으로 약 16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관광명소다. 댐으로 형성된 호수와 나가르주나 곤다 섬 등으로 뱃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텔랑가나 관광공사는 조만간 이곳에 불교테마파크 부다반암을 개장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부다반암이 부처님 삶과 가르침에 대해 배우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스톱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부대중에게 평화로운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이 불교테마파크는 예술미를 자랑하는 불상들을 통해 해탈의 길로 이끌었던 부처님의 삶 속 사건을 엿볼 수 있다"는 게 관광공사 측 설명이다.

스리파르바타 아라마(Sriparvata Arama)라고도 불리는 부다반암은 나가르주나 사가르 구역 내 275에이커 부지에 건설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했다.

부다반암이 이 곳에 건립되는 이유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이다. 1927년 후 부다반암 자리에는 사원과 법당터, 부도탑과 같은 불교문화유산이 다수 발견됐다. 불교학자 아차랴 나가르주나(Acharya Nagarjuna)가 인근 언덕에서 그의 여생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다반암은 총 8구역으로 나눠 건립된다. 이는 팔정도(Ashtanga Marga)를 상징하며 구체적으로 부다차리타바남, 자타카공원, 다야나파남, 부도탑 공원, 고등불교교육을 위한 아차라 나사르주라 국립센터, 크리쉬나 계곡 공원, 테루구 주의 불교를 대표하는 구역, 그리고 마하스투파 등으로 구성된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부분은 이미 착공됐고, 아차라 나가르주나 고등불교교육 국제센터, 크리슈나 계곡 등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아마라바티(Amarāvathī)에서 가장 큰 부도탑으로 알려진 아마라바티 스투팜(Amaravathi Stupam)의 크기,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마하스투파는 불교테마파크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부도탑은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다.

박정현 객원기자

2100년 된 불교 유물, 인도서 발견

튜룰 만달서 기원전 1세기 제작 추정 유물 등 출토


인도 동부 군트르 지역 바이쿤타푸람서 발견된 불교유물. 사진출처=인디안익스프레스

2100년 된 불교 유물들이 지난 30일 인도 동부 군트르(Guntur) 지역의 튜룰 만달(Thullur mandal)에 위치한 바이쿤타푸람(Vaikuntapuram)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3월 31일 보도했다.

인디안익스프레스(indianexpress)는 이날 "마을의 바바흐니 마슈람(Bhavaghni Ashram)에서 발굴 작업 중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조사를 맡은 현지 고고학자에 따르면, 바이쿤타푸람서는 원뿔형의 광택 컵과 테라코타(양질의 점토로 구워낸 토기류) 화분, 매끄러운 화강암 조각, 사타바하나(Satavahana) 시대에 부도탑을 모셨던 천장덮개의 깨진 조각 등이 발견됐다.

특히 이 고고학자는 "인도고고학조사국(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소속 비명(碑銘)학 전문가인 K무니랏남 레디 박사가 이 글씨는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유물들은 비야사 바관 사원(the Vyasa Bhagwan temple)에 건축 중인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그는 "바이쿤타푸람의 불교 유물은 125년 전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보고된 게 최초였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